

# HYUNDAI E&C TODAY

2016 / 05 / 27  
Friday  
Vol.315



05 창립 69주년 OB 인터뷰  
Interview with OBs in celebration of the 69th anniversary of Hyundai E&C

08 EPCM 강자 벡텔, 혁신과 내실로 불황이긴다  
Bechtel, a strong player in the EPCM market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http://news.hdec.kr



## 현대건설인의 꿈은 역사를 만든다 Jump to the world



News

현대건설의 성장은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현대건설은 1947년 창립 이래 전후복구와 성장연대를 거치며 국내 건설 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60여 개 국가에서 800여 건에 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세계 속에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69년간 견고하게 쌓아온 현대건설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선배들이 그려냈듯이 '현대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다. ▶ 관련기사 5, 6·7면

Growth of Hyundai E&C is in line with the history of Korean construction. Through the efforts for postwar recovery and the continued collaboration for growth, Hyundai E&C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7. Hyundai E&C's reach is not limited within the country. The company conducted about 800 global projects in around 60 countries including South East Asia, Middle East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Sixty nine years after its foundation, Hyundai E&C's history still continues. Armed with "Hyundai Spirit," Hyundai people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history. ▶ Continued on page 5, 6 and 7

## 글로벌 건설 리더 '우뚝'... '100년 기업' 닷 올렸다

창립 69주년, 임직원 참여 이벤트로 애사심 고취

1947년 5월 25일 '현대토건사'로 첫발을 내디딘 현대건설이 창립 69주년을 맞이했다.

현대건설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첫 해외진출 사업인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부터 2013년 '해외공사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까지 현대건설의 사명(社名) 앞에는 늘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왔다. 현대건설의 저력은 신(新)·창(創)·통(通)으로 요약되는 '현대정신'에서 비롯된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69주년 창립 기념 서신을 통해 "창업주와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현대정신'은 현대건설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라며 "선배들이 물려주신 오늘의 현대건설과 불굴의 현대정신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또 "현대정신의 참 뜻을 살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현대건설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설 리더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한편,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그룹웨어 게시판에 올린 ▶ '신·창·통' 슬로건 공모전 ▶ 상상밋글 달기 이벤트 등은 1만 건이 넘는 조회수

를 기록하며 임직원의 관심을 모았다. 가족 사랑과 동료애를 담은 ▶ 'H 판타스틱 패밀리' 사진 공모전'도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됐다. 사진과 동영상 150여 점이 응모된 가운데 임직원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작 발표는 31일 예정.



현대건설 사옥 전경

## Hyundai E&C becomes a global construction leader based on Hyundai Spirit

Hyundai E&C marked its 69th anniversary on May 25 since it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Hyundai Civil Industries in 1947.

Korea's primary builder has led the history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or over half a century. Hyundai E&C was always "first" in the country: The company conducted its first overseas project, the Pattani Narathiwat Highway Project, in Thailand in 1965, and the outfit's cumulative overseas orders exceeded 100 billion dollars in 2013, a first for a Korean builder; The underlying strength of Hyundai E&C lies in "Hyundai Spirit" summed up as innovation,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In a letter to celebrate the company's 69th anniversary, Hyundai E&C CEO Jung Soo-hyun said that Hyundai Spirit, a proud legacy of the founder and those who worked for the company, is the source of how Hyundai E&C can remain as a sustainable company in the market. Jung added that he would like to deeply appreciate the indomitable spirit of all the predecessors of Hyundai E&C. He also encouraged all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saying that when they do their utmost b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predecessors, Hyundai E&C will definitely position itself as a global construction leader.

Meanwhile, the builder holds a range of events to remind its employees of what the establishment of Hyundai E&C means to them.





NEWS 그룹사 소식

##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외관 공개

현대자동차가 발주하고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외관이 9일 공개됐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자동차 체험 공간으로,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7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이 건축물은 부지면적 1만6719㎡의 공간에 지상 9층, 지하 5층의 총 14개 층 규모로 건립되며, 대규모 전시 공간인 키텍스, 자유로와 인접해 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사인 DMAA社에서 설계한 것으로, 지상 1, 2층 외부를 통유리로 둘러 건물 3층부터 우주선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형상을 갖췄다. 향후 이 건물은 고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 현대엔지니어링, 2016년 홍보 브로슈어 발행

현대엔지니어링이 2016년도의 홍보용 브로슈어를 제작·발행했다. 신규 브로슈어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비전·역사·사업영역·실적 등이 담겨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발주처 및 고객들을 위해 총 7개국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로 제작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이미지 자료들을 활용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 플랜트사업본부, 단합대회 행사 가져

플랜트사업본부가 실 단위로 단합대회를 가졌다. 본부 구성원 간의 일체감 조성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플랜트사업본부 6실, 총 267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실별로 나누어 난지 캠핑장 바비큐 파티,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청계천 산책, 볼링 경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화합을 도모했다.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수주영업실 관계자는 "오랜만에 야외에 함께 모여 힐링의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나누니 동료애는 물론 애사심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

우리 회사가 20일 본관 15층 중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주수 단계에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악성 공사를 근절하고, 수익성 악화 및 근로 환경이 열악한 현장에 노사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노력'을 선포했다.

또한 임직원의 복지 개선을 위해 ▶국내 현장 직원 식대 인상 ▶해외근무 직원 정기휴가 추가 사용 허용 ▶팔순 경조휴가 ▶직원 자녀 자동차 공장 견학 프로그램 등의 항목에 합의했다.

# 술선수범으로 안전 성과 높인다

## 26일, 상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



우리 회사 경영진들이 26일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 안전리더십 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 경영진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63명은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소재의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 '2016년 상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경영진들은 3D 가상 안전체험과 건설안전 VTR(영상)을 시청하고 건설현장 추락 등을 안전장비 착용 전후로 직접 비교체험하며 안전경영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리더십 교육은 지난해 9월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정수현 사장은 총평에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

해서는 오늘 참석한 경영진들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리더들이 술선수범해 100% 안전한 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국내 중대 재해 0건을 비롯해 일반 안전사고도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전경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전작업 허가제 준수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인양물 하부 출입 금지 ▶건설장비 안전장치 해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대건설 12대 안전규범(HDEC 12 Safety Golden Rules)'을 제정·선포하는 등 체계적인 현장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Safety leadership training for management

Executives of our company rolled up their sleeves to raise safety consciousness and prevent safety-related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On May 26, 72 management including CEO Jung Soo-hyun attended the training session on safety leadership held in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a 3D virtual safety training program and watched a video clip about construction safety. They learned how to deal with falling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and wore safety gear in person, which

gave a good chance for them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The safety leadership training program is conducted twice a year since its first class in September 2015.

"The willingness of our executives to manage and supervise safety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at we should make our construction sites safer," CEO Jung said. "We, leaders of our company, need to take the lead in promoting safety management and ar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 response system to achieve 100 percent safety."

##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힐스테이트 동탄' 조감도.

우리 회사가 6월 중 동탄2신도시 A42블록에 '힐스테이트 동탄'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동탄2신도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6개 동, 총 1479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다.

단지 전체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61㎡·74㎡와 같은 틈새면적도 포함되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뛰어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올해 개통 예정인 동탄순환대로와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신도시 어디로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에 위치해 있으며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

분양문의 1877-5510

## 싱가포르 럭키타워 콘도미니엄 목동 힐스테이트 준공



싱가포르 럭키타워 콘도미니엄 현장 전경(좌), 목동 힐스테이트 현장 전경(우).

싱가포르 럭키타워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가 25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 공사는 싱가포르 도심 그레이니저로드에 연면적 3만6306㎡, 지하 1층~지상 24층 2개 동(174실)의 콘도미니엄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억 3700만 달러(약 1500억원) 규모다.

현장소장 김태희 상무보는 "2012년 5월 착공 후 48개월 만에 싱가포르 중심가에 랜드마크 건축물을 완공하

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준공 소감을 밝혔다.

목동 힐스테이트도 32개월의 공사 끝에 19일 준공했다. 서울 양천구 중앙로 36길에 위치한 목동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15개 동, 총 1081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유기적인 단지 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했으며 전체 동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 업무 효율 높여주는 '비즈폰(BizPhone)' 도입

우리 회사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9일 '비즈폰(BizPhone)'을 도입했다. '비즈폰'이란 개인 스마트폰을 회사 전화와 연계해 임직원이 사무실에 부재 시 개인 스마트폰으로 자동통화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직원 전화번호 검색이 가능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현장까지 임직원 간 통화가 무료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통화 시 국내요금도 적용돼 통신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즈폰 사용 독려는 물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해외현장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빠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5월 핵심 가치 인문학콘서트 열어

우리 회사가 19일 본사 대강당에서 우리 회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핵심 가치 인문학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연애·소통 분야의 스타 강사인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감성 소통을 주제로 강연해 임직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Warmer인가 Cooler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김 소장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경영의 성패는 커뮤니케이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또 소통에 있어 공감이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소·공정적 피드백·적절한 추임새 등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심 가치 인문학 콘서트는 임직원에게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김지윤 소장.



## Han Kang's new novel on purity published today

May 25

"I completed 'The Vegetarian' 11 years ago. Speaking for myself, I walked away from the novel while working on other novels," author Han Kang said at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I didn't expect to win the prize at all."

It was the first time she spoke of her famed work since returning from the United Kingdom, where last week she was awarded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for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book.

Today, Han's latest novel is being released. Titled "The Elegy of Whiteness," it focuses on pure things that cannot become dirty: transparency, life and light.

"I wanted to look at a certain point where people are bright and dignified," she said.

She mentioned that she wrote the book while staying in Warsaw, Poland, around the fall of 2013. Living in a reconstructed city that had been totally destroyed by war in 1944, she thought of her older sister who died at birth.



Author Han Kang

This novel explores the life, death and purity she wanted to give to her baby sister, "if I were allowed to give her some parts of my life," she explained.

The new novel is delivered in a strange form - some parts are like prose, while other parts are poetic; but Han says it wasn't her intention. It is a book that may lack narration of the story, she said.

In fact, her novels are all connected, each one raising a new question at the end. "The Vegetarian"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people can bear the world combining violence and

beauty, and it ends with the longing for an answer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hye's sister, In-hye," she said.

Her next novel was "Breath Fighting," published in 2010, which tried to provide the answer to the question she asked in her previous novel. In her following novel, "Greek Lessons," she started with another question in mind, asking, "Which aspect of life people should pursue as they live?"

In "Human Acts," published in 2014, Han described people who struggle to live with dignity even as violence persists around them. Then, the next novel

raises a new question regarding dignity.

Despite all the keen interest in her lately, Han doesn't seem to falter.

"I want to go back to my work as soon as this conference ends," she said. "I deliver my messages in writing in the form of books; I believe that writing silently in my room is the way to overcome [all this attention]."

She continued, "I think when people perceive every scene, behavior and movement of characters as questions, there is no literature that is difficult or boring."

By KOREA JOONGANG DAILY

## 순수에 대한 소설가 한강의 신작 출간

소설가 한강은 기자간담회에서 "소설 『채식주의자』를 완성한 게 11년 전이다. 다른 작품을 작업하면서 그 소설에서 많이 걸어나온 상태다"며 "상을 받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으로 지난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이 영국에서 돌아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 지난 5월 25일 한강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신작 『흰』은 더럽혀지려 더럽혀질 수 없는 것들, 즉 투명함·생명·밝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강은 "인간의 밝고 존엄한 부분을 바라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강은 2013년 가을 무렵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물면서 신작 집필을 시작했

다고 말했다. 작가는 1944년 전쟁으로 거의 모두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접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언니를 떠올렸다. 이번 신작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줄 수 있었다면' 아끼고 있던 언니에게 주고 싶었던 삶과 죽음 그리고 순수함에 대한 탐구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특이한 형식으로 쓰여졌다. 산문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지만 작가는 이것이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전하며, 이야기의 내레이션이 부족할 수도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사실 한강의 소설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소설은 끝에 이르러 질문을 제기한다. 소설가 한강은 "『채식주의자』는 인간은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

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영혜 언니인 인혜의 답변을 갈망하는 데서 끝난다"고 말했다.

2010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바람이 분다』는 이전 소설에서 작가가 던진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그 다음 장편 『희랍어 시간』에서 작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삶의 어떤 지점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며 소설을 시작했다.

2014년에 출간된 『소년이 온다』에선 인간의 주변에 끈질기게 존재하는 폭력 속에서도 존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최근 그녀를 둘러싼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인다. 그녀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지금 쓰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책의 형태로 이야기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 방에 숨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작가는 "매 장면 인물의 행동, 움직임 질문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렵거나 지루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Key expressions

**persist** 집요하게(고집스럽게) 계속하다  
**dignity** 위엄, 품위, 존엄성  
**keen** 강한, 깊은



###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 Opinion Question 유형

#### Q Do you think female's appearance is important in workplace?

I hope not to be, but I think it is important in reality. Not only for female, also for male. All have to take care of their appearance in their workplace. It's not about pretty or handsome. Especially in Korea, it is important to be seen as a diligent person in society. It appeals with appearance. With clean hair and clothes, we can make our image fancy and diligent. Because of this reason, I think appearance in workplace is important to both male and female.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 'X-Men' ready to throw its hat in the ring



May 20

With summer approaching, big-budget tent-pole movies are bombarding the box office, one after another.

After "Batman v Superman" and "Captain America: Civil War" invaded local theaters, the time has now come for the return of the "X-Men" series, which began the trend of featuring numerous superheroes on screen at the same time, either joining forces or fighting against each other.

The ninth installment in the whole franchise and the third series in the prequel trilogy, "Apocalypse" boasts a scale and cast that live up to its rivals.

"This is the biggest X-Men movie in terms of scope and size," director Bryan Singer said during an online press conference held in Seoul on Thursday.

The story starts approximately 10 years after the previous installment, "Days of Future Past" (2014), where the mutants headed their separate ways after having a major showdow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In the meantime, the ancient creature called Apocalypse (Oscar Isaac), which is the first-ever mutant creature on Earth, awakens from a deep sleep and tries to take over the world, wiping out what has been built and start anew from scratch. By KOREA JOONGANG DAILY



### 외국인 직원 Talk/Talk

## I consider Korean staff to be friends and family



**Nadim Dabdoad**  
(Testing & Commissioning Manager in the Hamad Medical City Project, Qatar)

####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am Mechanical Engineer who has a true passion of enhancing my career and strives for a better position with more challenges. I have been working with Hyundai E&C since January 2012. I started off with the company as MEP coordinator in HART where

I ensured that MEP items were installed and commissioned in a professional manner without any design problems or complications. I continued to work for the HART project until January 2015 when I was requested to join the QAHO project as Mechanical Commissioning Manager. Currently I am still with the QAHO Project which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projects in Qatar.

####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I was requested by my colleague to join Hyundai E&C. I always wanted to work with a big international company

like Hyundai E&C. Finally I got what I wanted.

#### Q We would like to hear your tips for getting along with Korean staff.

Well, to be honest with you, I consider our Korean staff to be my friends and family as I see them on a daily basis. I see them more often than I do my wife and kids. Koreans are really friendly and hard working people who strive to finish their work successfully without any problem. What I like the most about Koreans is that they show care and they share information between each other.

#### Q Whenever you feel stress because of the heavy workload, how do you manage it?

Let me first say that I try my best not to transfer my work load to my family at home, and I always try my very best to "switch off" from work mode whenever I enter my house. Whenever I feel stressed and pressured at work, I just take a few minutes for myself, have a cup of coffee with a cigarette or just have a walk around the project area and look at what I and my team have built so far. This will give me the power to go back to my office desk and push me more to get things done.



Nadim and his family



## R&D 혁신 스토리

# 스카이라인 1마일, 마천루를 향한 기술 경쟁

### ⑥ 초고층 빌딩에 적용된 현대건설 첨단 건축기술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Global Business Center)의 모습을 공개했다. 105층 통합사옥을 포함한 6개 건물과 중앙광장, 공공 보행통로를 갖춘 열린 공간 형태의 신사옥은 '새 시대로의 질주(Drive to New Era)'를 콘셉트로 하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과 도전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카이라인을 바꾸며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초고층 빌딩. 그 안에 숨겨진 특별한 기술을 소개한다. 글=이영주

#### 키높이 경쟁, 어디까지 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리브 어 페어>의 로맨틱한 장소, <킹콩> <인디펜던스데이>의 압도적인 액션신으로 더욱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의 상징이자 미국 월가의 자존심이었다. 1931년 완공돼 40여 년간 세계 최고(最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 빌딩은 현재 10위에도 들지 못한다. 수많은 도시와 기업들이 앞다퉀 높이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법은 '높이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빌딩으로 정의한다. 우리 회사가 시공한 부산국제금융센터(이하 BIFC, 289m)나 전경련회관(246m) 등의 오피스는 물론 목동 하이패라온(256m, 69층),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176m, 53층) 같은 주거용 빌딩도 모두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 (표) 첨단공법과 특수자재의 투입으로 시공비가 일반 빌딩의 두 배 이상 들지만 상층부로부터 갈수록 가용공간이 줄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초고층 빌딩. 덕분에 최근에는 높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디자인의 비정형 건물이 주목받기도 한다. 2019년 완공 예정인 높이 1000m의 사우디아라비아 킹덤타워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를 뛰어넘는 새 타워를 구상 중이라고 하니 1957년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꿈꿨던 높이 1마일(약 1600m)의 빌딩이 현실화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 100층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는?

초고층 건물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바람이다. 롯데월드타워 최고층에서 느끼는 바람의 하중은 지진 하중보다 3배나 높다. 500m가 넘는 100층 건물의 옥상에서 10분간 부는 평균 풍속 역시 60m/s(태풍 매미 한반도 상륙 당시 최대 풍속 40m/s)라고 하니, 바람을 극복하는 기술이야말로 초고층 빌딩 건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첨단건축연구팀은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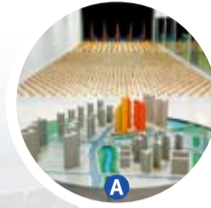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 Global Business Center)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층수 105층  
연면적 92만 8887㎡  
시설 그룹통합사옥,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호텔, 업무시설, 도시광장 등

### 바람을 극복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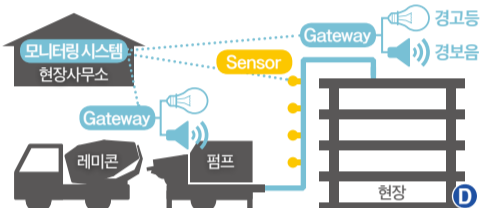
풍동실험을 통한 구조설계 구조물에 전해지는 바람의 세기와 강풍에 의해 구조물 표면에 작용하는 풍압, 건물 주변에 흐르는 기류 변화 등을 측정해 최적의 구조를 설계



A 풍동실험실의 풍력실험 모습  
B 건물에 미치는 기류 영향

### 높이를 극복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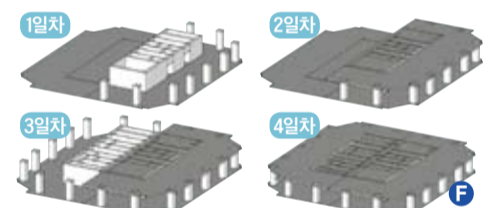
초고층 콘크리트 장거리 압송 최적의 콘크리트 배합 설계, 펌프 적정 성능 평가, 배관시스템 최적화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압송 메커니즘 집약 기술



C 터키 보스포루스대교 현장의 압송성 평가시험  
D 콘크리트 장거리 압송기술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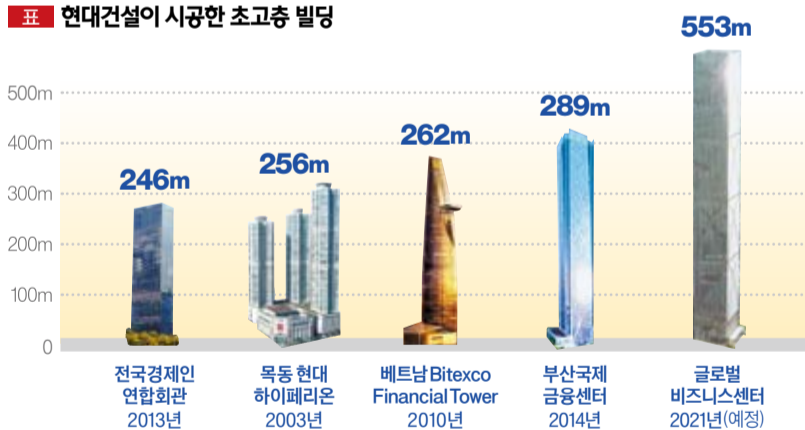
### 시간을 극복하는 기술

골조공사 4Day Cycle 자재의 모듈화, 거푸집의 자동화 등 시공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공정을 시스템화해 공기를 단축하는 기술



E BIFC 시공 모습  
F BIFC 현장의 4Day Cycle 개념도

표 현대건설이 시공한 초고층 빌딩



에 위치한 연구개발본부 내 대규모 풍동실험실을 갖추고 풍력·풍압·풍진동·풍환경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1997년부터 100건 이상의 풍동실험을 수행해 온 만큼 공기역학을 활용한 최적의 구조를 설계한다고 자부한다. 또한 바람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을 저감시키기 위해 TMD(Tuned Mass Damper: 동조 질량형 감쇠기, 거대 수조) 등의 제진장치(지진이나 강풍 발생 시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건물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풍진동 저감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가 밑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순서로 건물 내부에 바람이 형성)를 저감하기 위한 세부 기술들로 공기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밀성(氣密性)을 확보해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높이의 장벽을 극복하라

오티스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현대식 엘리베이터의 등장은 가볍고 튼튼한 구조재료의 발전과 함께 19세기 초고층 건축물 등장에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높은 공간에서의 작업은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첨단건축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콘크리트 장거리 압송 기술은 높은 곳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공법이다.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100층이 넘는 높이까지 한 번에 쏟아올리는 이 기술은 적절한 압력과 압력을 견디는 특수 배관, 이송이 용이한 최적의 콘크리트 배합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첨단건축연구팀은 반복적인 '압송성 평가'와 센서를 통한 '펌프 모니터링'을 통해 콘크리트 품질 저하는 물론 배관 막힘이나 파열 같은 우려 요인을 해결했다. 이 기술은 현재 세계 최장거리인 1.2km까지 실험에 성공했으며, BIFC(289m)와 터키 보스포루스대교의 주탑(323m) 시공에

적용돼 효율성이 입증됐다. 젠가게임처럼 똑바로 쌓아올리는 기술도 필요하다. 초고층 건축물은 약간의 오차만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화된 측량기법을 통해 정밀하게 수직도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성신호 수신을 통한 GPS 계속 기술이나 3D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초고층 정밀계측기술은 수백 미터 높이의 건물도 오차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공정관리는 물론 품질 정확도 개선에 효과가 크다.

####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부분의 공사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에 비례한다. 하지만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공사기간 산정이 일반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2014년에 준공한 BIFC는 업무시설 대부분의 층이 4일 만에 지어졌다. 4일에 1층씩 올리는 '4Day Cycle' 공법을 위해 현장은 대부분의 자재를 모듈화해 시공을 단순화했고, 유압시스템을 이용해 거푸집을 인양하는 등 기계화 작업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균열 방지뿐 아니라 양생기간을 단축하는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적용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 단축에 큰 효과를 낸 것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이용한 건설관리 기술이다. 첨단건축연구팀은 까다로운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BIM을 통해 가상 시공함으로써 불확실한 리스크를 감소하고 공기 단축은 물론 품질향상에까지 기여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김진우 차장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첨단건축연구팀장



#### ① 첨단건축연구팀의 연구분야는 무엇인가?

팀 초기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필요한 시공기술들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압송 기술, 초정밀 계측기술, 급속시공기술 등이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리패브 모듈러 기술, 가상 시공기술, 레이저 스캐닝과 같이 BIM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통해 시공 이전에 가상 공간 속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해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구조 엔지니어링, 풍환경 엔지니어링, 파사드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분야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해 입찰 시에는 기술 VE를, 프로젝트 수주 후에는 기술적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 ② 현대건설이 다양해지는 첨단 건축 관련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회사가 글로벌 TOP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겸비한 엔지니어가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의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역량 향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공에 충실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발주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기술에 대한 전략적 선점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의 재래식 시공기술에서 벗어나 IoT, ICT, VR, 3D 프린팅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건축과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적용해야 향후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주도할 수 있습니다.





**창립 69주년 특집 OB 인터뷰**



## “현대건설은 과거고 현재며 미래다”



**이춘림 회장**  
57년 입사



**안성환 현대건우회 회장**  
68년 입사



**권애자 前이사**  
66년 입사 / 84년 재입사



**정진 선배님**  
66년 입사

현대라는 이름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스며 있다. ‘언제나 지금’이란 뜻에서 출발한 현대건설은 20세기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21세기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당대에 흘린 정직한 땀은 오늘의 현대건설을 만들었다. <사보신문>은 창립 69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설 역사의 산증인 이춘림(88) 회장, 안성환(75) 현대건우회 회장, 권애자(74) 前 이사, 정진(74) 선배님을 만났다. 수십여 년간 건설업계의 굴곡을 지켜왔던 만큼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가 이어졌다. 진행=김윤 / 정리=김만화 / 사진=이슬기

**굴곡의 역사를 헤치며**

**Q 초창기 회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춘림** 명예회장이 1947년 5월 서울 중구 초동에 현대토건사를 세운 게 시초였지. 처음엔 사무실도 한 해 전에 세운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 2층 한편에 자리잡았을 정도로 초라한 살림살이였어. 긴 시간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한 회사를 보면 참 뿌듯해. 1950년 현대건설을 세우고 얼마 뒤 전쟁이 나면서 부산으로 피란을 갔어. 그해 9월 명예회장이 서울로 돌아와 미8군 전방기지사령부 본부 막사부터 시작해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건설공사 수주에 매달렸네. 미군기지 공사 이익은 예상보다 몇 배가 됐지. 환차익으로도 크게 득을 봤어.

소양강댐 지을 때도 일화가 있네. 명예회장이 1960년대 초반에 소양강댐 건설 방식을 두고 댐 설계 전문가인 구보다 유타카 일본공영 회장과 설전을 벌였어. 구보다 회장은 소양강댐도 일본 댐들처럼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 그런데 명예회장은 소양강 주변에 흙이나 모래, 자갈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암석을 이용한 사력(砂礫) 댐으로 지어야 한다고 맞선 거야. 그때만 해도 사실 댐 기술이 많이 부족했지만 대통령이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줬어. 결론적으로 공사비를 30% 절감했고 더 안전하다는 평가도 받았지.

**안성환** 예피소드가 참 많은데 그중에선 주베일 산업항 공사 현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 당시 현장에서 노사문제가 크게 일어났었는데 현장 직원 하나가 그늘에서 쉬고 있던 덤프트럭 기사랑 말다툼이 난 거야. 관리자 입장에서

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속이 타지 않았겠어? 현장 직원이 기사 뒷방망이를 때렸는데 그게 화근이 됐지. 덤프트럭 운전기사 50명이 때로 몰려와 기물을 부수고 시위했어. 당시 이춘림 회장이 사우디 주재 사장으로 계셨을 텐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

**이춘림** 명예회장이 대단했어. 사건 내막을 보고받고 나서 사우디 전 현장에 노무 관리 요원을 파견해 인부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지. 후에 임금도 개선하면서 사태가 가라앉았어. 당시 목숨을 걸다시피 한 주베일 산업항 공사 덕에 우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네. 한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매달 평균 3000만 달러였고, 연말쯤 돼서는 1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심지어는 한국은행에서 통화가 팽창한다고 12월 송금을 늦춰달란 요청도 했었어. 해외 공사 기조를 닦았던 사업이니 의미가 참 컸지.

**건설인의 숙명**

**Q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권애자** 1966년에 첫 여성 대졸 공채를

치르고 입사했죠. 시험문제가 ‘대학에 떨어진 동생에게 위로하는 글을 써라’ 였는데, 누르스름한 16절 갱지를 빼곡하게 채우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정진** 제 입사시험 글제는 ‘훈민정음’이었어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마침 졸업논문 주제와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썼죠. 요즘은 표현으로 논술시험이예요.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시점에서 당시 우리 회사의 입사 시험만 봐도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보다 앞선 기업이라고 느껴져요.

**이춘림** 나는 57년에 정식 입사했지. 결혼 25주년일 때 아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결혼 25주년인데 당신과 산 건 8년도 안 된다고... 가정에선 서운했겠지만 나라에 보탬이 되니까 보람이 컸지.

**정진** 해외현장 주재 직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해외근무로 열두 달 중 아홉 달을 가족과 생이별하고 지내니 마음이 참 아팠지.

**안성환** 해외에서 일할 때였어. 열두 달 근무하고 휴가를 받아 집에 왔는데 아이가 현관 앞에서 “누구세요?”라고 묻



지난 16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건우회 사무실에서 69주년 기념 좌담회가 열렸다.

더라니까(웃음).

**이춘림** 건설인들은 속성상 늘 새로운 길을 뚫어야 해. ‘建(세울 건)’자가 일으킴을 뜻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건설’이란 창조정신과 무관치 않은 일이지. 황무지 위에 전인미답의 발자국을 찍어야 하고, 오지와 사막도 개척하는 것처럼 말일세. 이것이 바로 건설인들의 숙명이라 사명이야.

**유리천장을 깬 여인**

**Q 여직원 처음으로 임원을 맡으셨죠?**

**권애자** 결혼 직후 회사를 떠나 있다가 84년도에 경력사원으로 재입사했어요. 복직후생부에 근무하면서 12년 만에 첫 여성 임원으로 발탁됐죠. 그 사연이 화제가 돼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도 했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리더로 운신하기란 쉽지 않죠. 요즘 ‘유리천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풀지 못할 벽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성환** 여성 임원이 생긴 게 46년 만의 일이었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어. 권 이사가 승진한 이후에 여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야.

**정진** 권 이사님이 받은 스포트라이트 불빛은 아직도 뜨거워요(웃음). **권애자** 여성이 일단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도 참 중요해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선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지 말고 해결점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니까.

**Q 사우지(社友誌) 제작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권애자** 잠깐 맡았었어요. 명예회장이 해외로 출장 중이실 땐, 우편으로 사우지를 꼭 챙겨 보내드렸죠. 그럼 한참 뒤에 해외에서 엽서 하나가 날아와요. “미스 권 잘 봤네, 수고했어.”

**정진** 권 이사님을 이어 제가 편집 업무

를 맡고 있을 67년, 명예회장님께서 사우지 기사를 뽑으라고 지시하신 뒤에야 제대로 된 편집실을 갖추게 됐어요. 국내외 현장 주재 기자와 부서별 주재기자 한 명씩 선발했죠. 벽산 업무량에 상관없이 항상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하며 지냈죠.

**그룹사 시너지로 더 큰 미래 그린다**

**Q 최근 GBC 개발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춘림** 그룹사가 힘을 뭉치면 회사는 더욱 단단해지지.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그룹사가 힘을 모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참 흐뭇했어.

**안성환** 요즘 건설업계에서 협업은 늘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앞으로 단순 토목 건설이나 SOC에 매몰된 건설의 범위를 한 차원 넓게 봐야 해. 도로와 자동차, 건축물과 전자기술 등 융복합할 분야 모두 건설의 몫이니까.

**이춘림** 고부가가치 기술력도 강해져야 해. 단순 토목공사로는 이제 승부가 나지 않는 시대지. 미국 백텔이나 플로어가 견재한 이유는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EPCM(설계-자재구매-시공 일괄관리)’ 역량을 키워서야. 요즘엔 플랜트 설계도 한 장만으로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이 되어 버렸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임직원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다는 것일세. 패기를 가지되 사심을 버려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담담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 194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회사 이름은 줄곧 현대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69년간 역사를 오롯이 이어 온 것처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담담한 마음’을 모두들 잊지 말았으면 하네.





25일, 우리 회사가 창립 69주년을 맞았다. 1947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국내 프로젝트, 800여 건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한 우리 회사는 국내 어느 건설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 수주 누계 실적을 가졌다. <사보신문>에서는 창립을 기념해 세계 각 국에 세워진 현대건설 역작들을 소개한다. 글=박현의 / 일러스트=이은미



## Hyundai E&C Master pieces in the world

### America & Europe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에서 우리 회사가 주목할 지역은 중남미. 우리 회사는 2010년 콜롬비아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칠레 지사를 잇따라 설립했다. 그 결과 콜롬비아 베오 하수처리장, 우루과이 폰다 델 락고레 복합화력발전소,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Our company is eyeing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Since the foundation of our first branch office in Colombia in 2010, we have established our branches in Venezuela, Uruguay and Chile.

### Asia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우리 회사의 오래된 수주 텃밭이다. 우리 회사는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센텍시티, 말레이시아 제차 가스정제시설 공사, 파키스탄 차스마 수력발전소, 방글라데시 자무나 교량, 베트남 동진1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수주하며 아시아 전역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알렸다.

Together with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is where we have long maintained our strong hold. Hyundai E&C has made itself a name across the Southeast Asian region since it won the Pattani Narathivat Highway Project in Thailand in 1965.

### Oceania & Antarctica

호주,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와 남극 대륙은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극은 지구 기후 시스템을 조절하는 바리미터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미담(未談)의 땅이다. 이곳에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심문 발휘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가 있다.

Australia, Papua New Guinea, New Zealand and the Antarctic are a rich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and well known for clean environments. Our company operates the King Sejong Station and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in the South Pole.

### Africa

중남미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불리던 아프리카, 우리 회사는 1980년 리비아 라스라누프 항만공사를 수주하며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리비아 자위야 복합화력발전소, 알제리 아인 아르나트 복합화력발전소, 코트디부아르 아지도 3단계 복합화력발전소, 우간다 진자 교량 등을 수주하며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Hyundai E&C entered the African market in 1980 to build the port of Ras Lanuf in Libya. Since that, our company has received a growing number of orders from the unknown territory.

### Middle East

우리 회사는 1975년 1억3000만 달러 규모의 비레인 아랍수리조스스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공사로 중동 진출의 발판을 다진 우리 회사는 1976년 2월 16일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9억3000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이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건설 신화를 썼다.

Our company tapped into the Middle East market for the first time in 1975 by being awarded the 130-million-dollar deal to construct a shipyard in Bahrain. The Jubail industrial port projec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biggest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20th century.

## 세계지도 위 현대건설 명작들 오늘을 살게 하는 어제 그리고 내일의 프로젝트

우리 회사는 1965년 1월 540만 달러 규모의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1970년대 중동으로 발을 넓힌 우리 회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하게 변화하자 중동 시장에만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는 해외 건설현장 중 가장 큰 시장으로 주목 받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공사를 본격화하고,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성공리에 완공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제2의 중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우리 회사는 쿠웨이트-이란-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초대형 공사를 수주했다. 2005년 국내 전체 해외건설 수주 물량의 25%인 25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해외시장 다변화와 사업 다각화 등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펼친 결과, 2013년 11월 해외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우리 회사는 올해 초 'Neo Hyundai Spirit'의 가치를 세우고, 신(信)·창(創)·통(通)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글로벌 건설 리더'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

### America & Europe

<b>캐나다</b>	1986.07	프레저강 사장교
<b>미국</b>	1970.06	광 마파스 주력
	1970.01	알래스카 여러케인 협곡 교량
	1996.02	현대전자 미국반도체공장 1단계
<b>영국</b>	1996.12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b>러시아</b>	1995.07	블라디보스톡 비즈니스 센터
<b>터키</b>	2013.06	보스포루스 제3대교
<b>베네수엘라</b>	2014.06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
<b>콜롬비아</b>	2012.03	베오 야수처리장
<b>우루과이</b>	2012.11	폰다 델 락고레 발전소
<b>칠레</b>	2014.02	자카오 교량

### Middle East

<b>바레인</b>	1975.10	아랍 선박 수리소
	1977.06	국방성 본청
	1977.09	야수처리 No.5A
	1981.01	걸프 국제은행 본점
<b>사우디아라비아</b>	1976.06	주바이 산업항
	1978.07	알코바 1-2지구 공공주택
	1979.04	알코바 담수와 플랜트
	1984.12	내무성 본청
	2008.02	알 잘라미드 발전소
	2009.03	카한 가스처리시설
	2011.10	쿠라야IPP 연계 Part 1 승전선
	2012.03	마덴 알루미나 제련소
	2013.10	아일-카심-뉴에르코 간 380kV 송전선
<b>카타르</b>	1979.02	도아셀라트 호텔
	2008.05	라스라만 천연가스 액화정제시설
	2006.08	펄 GTL 프로젝트
	2007.12	5-6단계 비료공장
	2008.05	라스라만 C 복합화력발전소
	2011.02	아마드 메디시티
	2011.10	국립박물관
<b>예멘</b>	2005.02	사나-마리브 400kV 송전선 및 변전소

### Asia

<b>태국</b>	1966.01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1994.11	비료공장
<b>말레이시아</b>	1982.01	페낭대교
	1990.01	가스처리 플랜트 및 수송항 2-3단계
	1991.09	말라카 정유공장 해상 탱크
	1992.06	가스처리공장 4호기(GPP4)
<b>싱가포르</b>	1981.05	플라워 테크 매립공사
	1986.02	창이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992.04	센텍시티
	2007.10	파시르 판장 터미널 3-4단계
	2009.06	엑시 유류기지
	2011.04	아시아 스퀘어타워 2 복합 빌딩
	2013.08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2015.08	태양성 매립공사 2단계
<b>방글라데시</b>	1994.04	자무나 다목적교
	2011.02	뉴 마리푸르 복합화력발전소
<b>파키스탄</b>	1987.05	타르벨라 수력발전소
	1994.01	차스마 수력발전소
<b>필리핀</b>	1986.01	아시아개발은행

<b>베트남</b>	2008.06	비텍스코 파이낸셜 센터
	2009.12	어노이 여동 복합주거단지 개발
	2010.07	JW 메리트 호텔
	2011.10	몽장1 석탄화력발전소
	2015.10	어노이 메트로 3호선
<b>인도</b>	1996.09	현대자동차 공장
	1997.09	안파라 C 석탄화력발전소
	1999.01	타이델파크 빌딩
	2000.09	아루나 교량
<b>우즈베키스탄</b>	2013.06	탈리마진 복합화력발전소
<b>인도네시아</b>	1973.10	자코라위 고속도로
	2004.07	수반 2단계 가스개발
	2012.12	사물라 지열발전소
	2011.04	푸산간 1-2 수력발전소
	2016.08	필레본 II 석탄화력발전소
<b>스리랑카</b>	2008.04	콜롬보 항만 확장
	2013.11	킬스지터 복합 건축
<b>일본</b>	1995.12	나고야 한국 총영사관

### Africa

<b>이집트</b>	1999.04	카이로 포시즌 호텔
<b>리비아</b>	1980.09	라스 라누프 항만 공사
	2002.11	엘리트 가스처리시설
	2003.08	자위야 복합화력발전소
	2007.11	알 칼라즈 발전소
<b>튀니지</b>	1997.07	라데스 올림픽 스타디움
<b>코트디부아르</b>	2011.12	아지도 3단계 복합화력발전소
<b>우간다</b>	2014.01	진자 교량
<b>알제리</b>	2012.11	아인 아르나트 복합화력발전소
	2014.02	지젤-비스크라 복합화력발전소
<b>오주</b>	1970.03	번버리 신내항 준설 및 매립
<b>파푸아뉴기니</b>	1986.10	송기섬
<b>남극</b>	1987.12	세종과학기지
	2012.12	장보고과학기지

### Oceania & Antarctica

###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 시공한 프로젝트 개수

대륙	나라	개수	대륙	나라	개수
아프리카	이집트	4	태국	15	
	알제리	3	중국	20	
	튀니지	1	일본	5	
	리비아	26	홍콩	19	
	우간다	1	대한	3	
	모잠비크	1	베트남	19	
	가나	2	인도	16	
	코트디부아르	1	스리랑카	5	
	쿠웨이트	65	대만	8	
	바레인	28	우즈베키스탄	2	
아시아	이란	7	파키스탄	2	
	카타르	17	인도네시아	7	
	아랍에미리트	55	방글라데시	14	
	레바논	1	미얀마	3	
	이탈리아	39	몽골	1	
	사우디아라비아	157	말레이시아	46	
	요르단	2	브루나이	1	
	예멘	13	인도네시아	35	
	오만	4	싱가포르	82	
	파푸아뉴기니	5	필리핀	7	
오세아니아	호주	2	영국	1	
	피지	1	리비아	1	
	남극	2	네덜란드	1	
	캐나다	4	우루과이	1	
	미국	7	리비아	3	
	콜롬비아	2	아랍에미리트	1	
	베네수엘라	6	터키	1	
	브라질	1			
	칠레	1			
	우루과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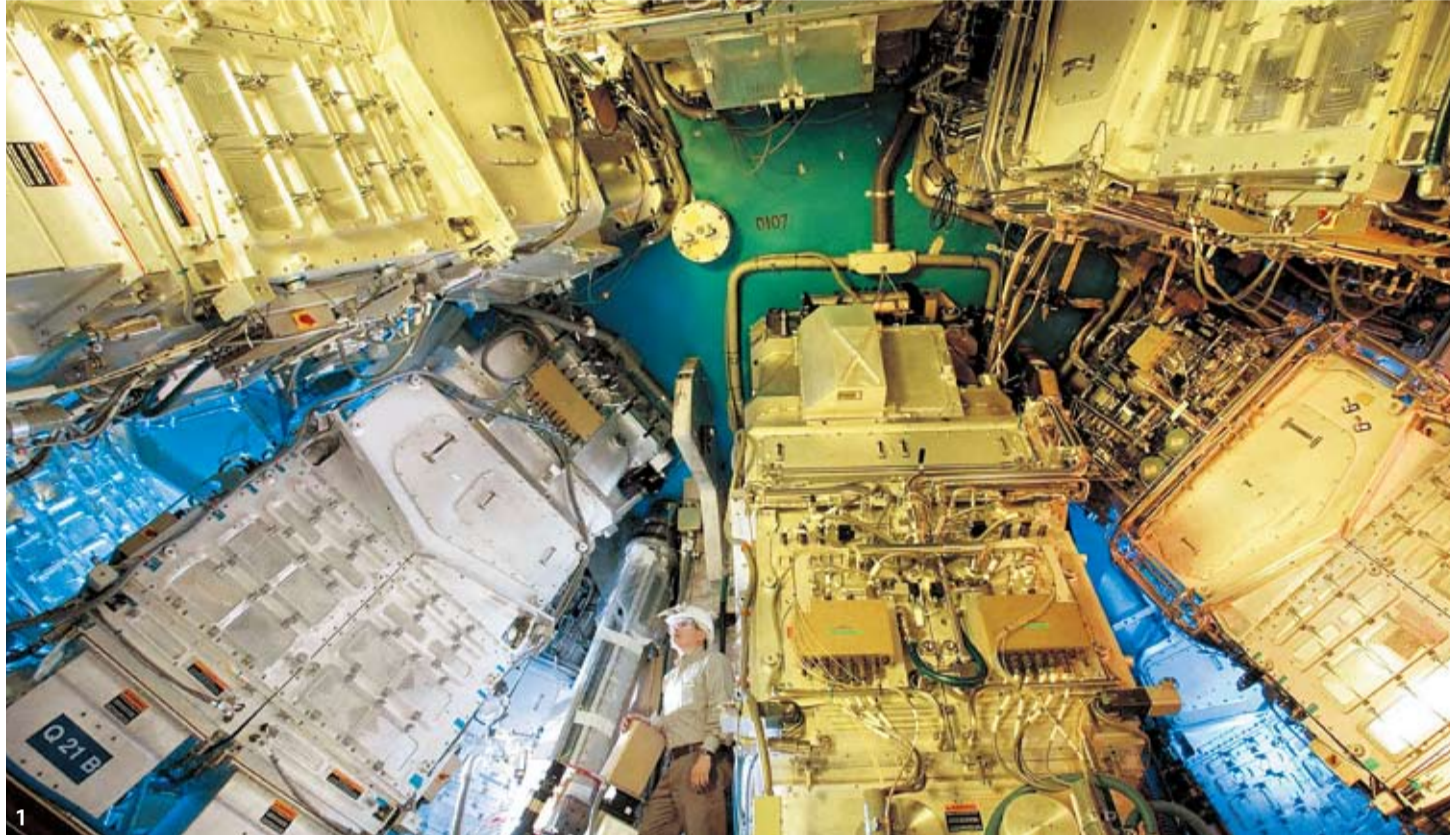


※년월은 착공일 기준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해외기업경영트렌드 ⑥ 벡텔

# EPCM 강자 벡텔, 혁신과 내실로 불황 이긴다



1 벡텔은 2007년부터 미 정부가 30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가장 강력한 레이저 장치 '국가점화설비(National Ignition Facility-NIF)' 공사에 참여했다. 이 설비는 수소 원자를 융합시켜 작은 별을 생성해 이론상으로 무한의 파워원에 접근한다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사진은 NIF가 설치된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모습. 2.오는 2017년 중반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인 미국 버지니아의 Stonewall Power Plant 현장. 벡텔은 이 플랜트가 버지니아-워싱턴DC주 최대 77만 8000가구의 전력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벡텔(Bechtel)은 건설업계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기업 중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회사다. 벡텔은 설계·조달·시공·관리 EPCM(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Management) 전문 업체다. 발주처가 플랜트 사업을 의뢰하면 벡텔은 완공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휘한다. 건설 전문지 『ENR』은 벡텔이 20년간 미국 400여 개 건설회사를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120년 장수기업 벡텔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글=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 연구실장 / 사진=벡텔코리아 제공

### 혁신1 경쟁력의 원천, PM·엔지니어링

1898년에 설립된 벡텔은 1940년까지 토목·시공 중심으로 성장기반을 다졌고, 1950~70년대에는 발전·정유·원전 EPC로 발을 넓혔다. 발전사업에 주력하던 벡텔은 1980년대 후반 원전 사고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는다. 매출이 크게 줄어 인력의 50%가량 해고할 정도였다. 벡텔은 미국에서 민간 자본으로 발전소를 지어 생산한 전기를 정부에 팔 수 있는 '독립발전사업자(IPP)' 법안에 주목했다. 1991년에 벡텔은 PG&E(Pacific Gas & Electric Co)와 IPP 사업을 할 수 있는 벤처회사를 설립했다. 주주 가뭄에 시달리던 벡텔은 발상의 전환으로 불황을 이겨냈다. 2000년대 초 엔론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발전 부문의 EPC는 벡텔의 성장을 주도했다. 이후에는 석유와 가스 개발 EPC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최근 벡텔은 'All Round Player'로 미국 대형 사업 수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벡텔의 사업 분야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주력사업은 ▶DB/EPC 사업(53%) ▶CM at Risk 사업(26%)이지만, ▶PM(CM for fee, 12%) ▶엔지니어링(7%)을 합치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에 순수 시공의 매출은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구매·시공을 패키지로 하는 '통합형

발주 방식'은 벡텔의 강점이며, 경쟁력은 'PM'과 '엔지니어링'에서 얻는다. 이러한 사업 수행 방식은 기획·설계·시공 프로세스를 분산한 국내 대형 건설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 혁신2 차별화된 '프리-엔지니어링' 기술

벡텔은 단순 시공회사가 아닌 설계에서 관리에 이르는 고부가 영역 발굴에서 해법을 찾았다. 자신들을 '건설사'가 아닌 '건설링 회사'로 포지셔닝할 정도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 벡텔이 수행하는 사업의 90%는 공기 내에 준공된다는 인식을 심을 정도로 신뢰를 확보했다.

벡텔의 숨은 비결은 다른 EPC 업체들과 차별화된 '프리-엔지니어링(pre-engineering)' 프로세스에 있다. 1990년대 들어 불황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극도로 민감했던 발전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길 원했다.

벡텔은 1993년 발전 플랜트의 설계 모델을 사전 제작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발전소 건립은 철저히 발주처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 벡텔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사전 제작에 성공했다. 공사 기간을 25%, 비용을 30%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1996년 미국 오리건주 발전소 건립

쿠웨이트·이라크 재건 등 굵직한 수주로 연 매출 30조원 프리-엔지니어링 기술로 공기 단축해 원가 절감 고객 요구사항 공통분모 찾아내 플랜트 설계 모델 사전 제작

에 첫 적용된 프리-엔지니어링은 이후 벡텔의 상징이 됐다. 벡텔은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공기를 7개월 단축했다. 벡텔은 공사비용을 산정할 때 건립 등 직접비용 외에 유지보수 등 간접비용까지 함께 고려한다. 객관적인 비용과 기간 기준을 세워놓고 이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면서 낭비 요소를 없앤다. 벡텔이 1930년대 미국 후버댐 건설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홍콩 국제공항, 쿠웨이트 및 이라크 재건 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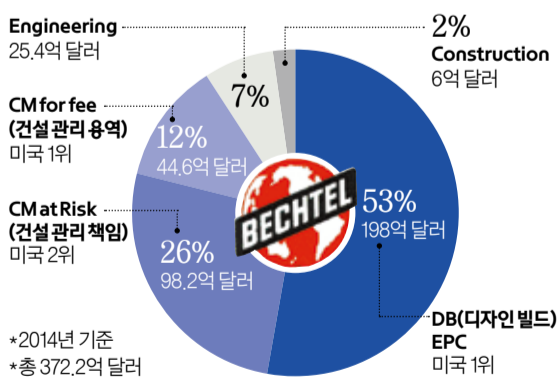
### 혁신3 고객사 임직원 1:1 맞춤형 관리

벡텔은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KAE(Key Account Executive)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5년 이상 엔지니어링 등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직원 1명에게 기존 고객 관리를 맡기고 있다. 여기에 '지퍼 플랜(zipper plan)'이라는 전략적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수주를 늘리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에서 말단 직원까지 고객사 임직원과 1대1로 담당을 정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벡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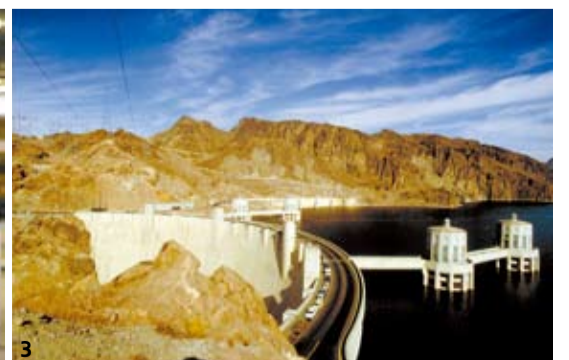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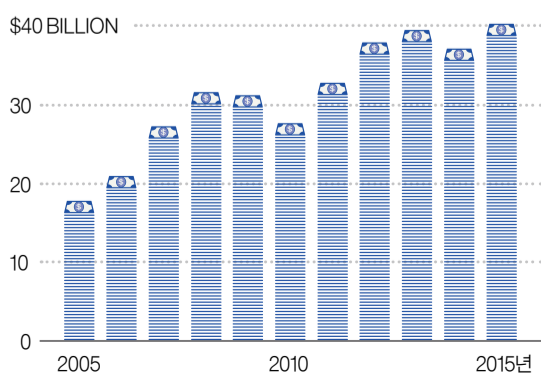
은 조인트 벤처와 컨소시엄 전략으로 사업 수주와 리스크도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기술 지원과 사업 운영(현장 조직)을 이원화하는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갖췄다. 핵심 인력은 대부분 본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실제 현장은 외주 인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도 주목할 만하다. 벡텔은 4대에 걸쳐 110년이 넘도록 가족경영을 해왔다. 뿌리박힌 가족경영 위에서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퍼진 벡텔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똑같은 매뉴얼의 윤리규정을 적용받는다. 전 직원이 행동강령에 대한 컴퓨터학습에 참여하고 2년마다 재학습한다. 7개 국어로 번역된 강령집을 바탕으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한다. 벡텔 가족으로 처음 들어올 때부터 벡텔의 윤리와 준법에 대한 가치를 배운다. 벡텔이 직원들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반부패법(FCPA)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가 기소되거나 벌금을 내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 벡텔의 사업수행방식별 매출 비중



### 2005~2015 매출액



1 벡텔이 2000년 호주 퀸즐랜드에 완공한 첫 번째 사제(私製) 발전소. 2 설계 시 3차원으로 모든 건물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축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하고 있다. 3 1936년 미국 남서부 콜로라도강 유역에 준공된 후버댐은 높이 221m, 기저부 너비 200m, 저수량 320억㎥ 규모를 자랑한다.



# 생각의좌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래도 한때 영화캐나 봤다. 20대 때에는 시네마떼끄나 하이퍼텍나 혹은 시네큐브 같은 곳에 들러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도 찾아봤다. 그중에는 쿠엔틴 타란티노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난해한 영화도 있었다. 이자벨 위페르 정도는 알아야 영화 좀 본다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며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영퀴방(영화퀴즈방)을 주름잡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 소위 아저씨가 된 우리를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기가 부담스럽다. 귀에 익고 눈에 익숙한 할리우드 영어 영화는 괜찮지만 프랑스나 일본만 넘어가도 말이 귀에 걸리고 배우들도 어색하다. 입사하고 일하다 보니 최신 개봉 영화를 따라가기 버겁고 여기에 결혼과 육아까지 겹치면 영화관 나들이 자체가 사치스러운 외출이 되고 만다. 그나마 IPTV에서나 방영되는 걸 골라 보면 적극적인 관객에 속한다. 옛날처럼 다운로드 받거나 DVD를 구매하면서까지 보기가 쉽지 않다. 그 정도의 체력이 없고, 그만큼의 열정도 없으며 관심도 점점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대개 9시 뉴스에까지 나오는 천만관객들과 영화거나 주변에서들 보자고 하는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가 거의 전부다. 그것조차 아내, 남편, 아이들이 졸라대면 같이 동참할 뿐 자발적으로 영화를 보겠다고 시간을 비우는 것도 어렵다. 집 주변 가까운 멀티플렉스 극장을

선택해 마트에서 장도 보고, 백화점에서 식사도 마치는 동선을 선택한다.

점점 더 쉬운 영화, 머리 안 써도 되는 영화,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 보고 나오면 싹 잊어도 되는 영화, 보는 동안엔 적어도 회사 일이 생각나지 않는 영화들을 찾는다. 당연히 눈과 귀가 시끄러운 영화들이 더 좋다. 떠들썩한 슈퍼히어로의 활약을 보고 나면 잠시 현실의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듯싶다.

참 이상하게도, 영화 보기는 쉽지만 영화 보기는 어렵다. 이 모순적인 말 속에는 '적극적'이라는 행동부사가 빠져

들이 그렸다. <명량>이야 역사적으로 인증받은 위인 이야기인 데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과거고, <국제시장>은 울리고 웃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몸을 싣기만 하면 저절로 마지막 결말 지점까지 밀려가는 영화다. 2015년의 화제작이었던 <암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친일파에 비분강개하고 독립투사의 활약에 환호하는 데엔 그다지 큰 감정적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답은 정해져 있고, 반응도 예상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탐정 홍길동>이나 <곡성>은

쉬운 영화가 사랑받는 시대, 조금은 혼란스러운 영화가 등장했다.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 위해 영화를 선택하지만

때로는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긴장감'을 얻기 위해 영화를 본다.

있다. 마음먹고, 작정하고 영화 보기에 나이의 유통기한이 있는 듯싶다는 말이다. 올해 2016년 5월 극장가는 그런 점에서 조금 혼란스럽고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다. 무슨 말이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의 수준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가 된 작품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하 탐정홍길동)이나 <곡성>만 해도 그렇다.

지금껏 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을 살펴보면, 마음 놓고 몸을 편하게 기대어 볼 만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명량> <국제시장>과 같은 작품

좀 다르다. <탐정 홍길동>은 익숙한 홍길동 서사를 따라가긴 하지만 화면 구성이나 질감과 색깔이 기존의 '보통'한 국 영화와는 무척 다르다. 영화를 전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애착을 가지고 봐 온 관객이라면 유사한 흐름들, 즉 할리우드 영화 <썬시티> 같은 그래픽 노블 작품을 떠올리겠지만 그저 이제훈이 등장하는 탐정영화겠거니 하고 선택한 관객에게는 낯설게 분명하다.

<곡성>은 말할 것도 없다. <추격자> 정도의 현실적 스릴러 내지는 범인 추적 과정 및 범행 근거의 확인을 원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탐정 홍길동> <곡성>의 한 장면.

면 <곡성>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주지 않는 작품이다. 기괴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스크린에서 눈을 떼 수 없는 사이, 영화는 관객의 등을 떠밀며 이제 끝났다고 말할 뿐이다. 웬지 속은 듯싶기도 하고, 그렇게 단순히 처리하자니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듯도 싶다. 보고 나도 뭣가 개운치 않고, 그저 나쁜 영화라고 욕하기에도 뭔가 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렇다.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 위해 영화를 선택하고 영화관에 가기도 하지만 한편 일상적 삶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긴장을 얻기 위해 영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탐정 홍길동>과 <곡성>은 따지자면 후자에 가까운 영화들이다. 그저 킬링타임용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영화라기보다는 사고를 긴장시키고, 두뇌를 건드리는 유의 영화들이 셈이다.

물론 늘 긴장하고 살 수는 없다. 애초부터 영화는 정신분산의 요긴한 도구였다. 영화의 대중성을 상찬했던 독일의 미학자 발터 베나민은 영화만큼 강력한 정신분산의 오락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만큼 우리의 일상적 권태를 깨놓을 수 있는 훌륭한 선동 도구

도 없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다중감각의 체험은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다를 바 없는 일상적 흐름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는다.

어떤 영화를 선택하든 자유다. 하지만 권하고 싶은 건 때로는 날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를 가끔은 봐두라는 것이다. 보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뒤돌아나와도 자꾸 생각나는 영화, 잠들기 전에 생각나서 한 번쯤 고민에 잠기게 하는 영화, 그런 영화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지런히 만들어지고 또 극장에 걸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에 윤택함을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녹슬지 않기 위해선 너무 편한 것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정신이나 정서의 원리도 몸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 현이와 건이의 뉴비일기

1화 『글로벌 건설 리더, 현대건설』

『사보신문』은 현대건설의 비전·기업문화 등을 담은 웹툰을 올 5월부터 11월까지 연재합니다.

현이 너 이번에 현대건설 다니게 되었다며?

어머, 축하해~

고마워 모두들~

그런데 현대건설은 어떤 회사니?

건설회사니까 당연히 건물을 짓겠지~

그런가?

모르시는 말씀!

현대건설에선 우리가 '건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건물을 짓는 '건축사업' 외에도 '토목환경사업' 우리가 이용하는 다리, 도로, 항구를 건설하는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 공장을 짓는 '플랜트사업'이 있어.

또한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과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력사업'도 있지.

이 밖에도 금융과 마케팅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단다!

중요한 건이 모든 걸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야.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수주 누계 1000억 달러(약 115조원)를 달성했고

『국내최초 1000억달러 돌파!』

전 세계 건설사 중 현재 14위에 랭크 돼있지!

그리고 보니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부문 세계 1위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봤어!

DJSI란?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스위스 로보코델이 개발한 경제·성과·환경·사회·지배구조 등 5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는 투자지수다.

그만큼 현대건설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란 뜻이구나!

굉장하다, 그렇지!!

그럼 현대건설에 다니고 있는 현이도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

현이 대단하다~!

그렇게 되나?

글로벌 건설 리더 화라

은 세계가 보여...!!!!

라고 불러주렴..!

그럼 앞으로는 갑자기 현이 뒤에서

어... 멋지다..!

애, 애들이 어디 가~!

나도 입사지원할래~!!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 여행칼럼

### 동해안 770km '해파랑길' 참을 수 없는 '쪽빛 유혹'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종단길이자 국내 최장 트레일인 '해파랑길'이 최근 공식 개통했다. '해와 바다와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담긴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장장 770km나 이어진 초대형 트레일. 총 50개 코스로 구성돼 있는 해파랑길에서 그림 같은 동해를 벗삼아 자연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글=홍지연 <중앙일보> 기자 / 사진=임연두 <중앙일보> 기자, 한국관광공사 제공



해가 진 직후의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해파랑길은 걷기 여행 열풍을 몰고 온 제주올레나 지리산둘레길보다도 훨씬 방대하다. 해파랑길은 동해안의 바닷길과 숲길, 마을길 등을 비롯해 동해안의 명소 대부분을 들른다. 10개 구간 50개 코스, 770km에 이르는 해파랑길에서 걷기의 즐거움을 느껴 보자.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종단길이자 국내 최장 트레일인 '해파랑길'이 7일 공식 개통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동해안을 따라 걷는 종단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지 7년 만이다. 문체부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770km 길이의 코스를 주려 냈고, 2012년 해파랑길 전코스를 임시 개통했다. 그 뒤에도 수시로 보완작업을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모든 후속작업을 마쳤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해파랑길 공식 개통을 기념해 다음달 4일까지 '해파랑길770간기축제'를 진행 중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해파랑길은 동해안의 바닷길과 숲길, 마을길 등 다양한 길을 이은 국내에서 가장 긴 걷기 여행길"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해파랑길이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부각되고 스페인의 산티아고길 같은 국제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해와 바다 벗삼는 해파랑길

'해와 바다와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담긴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장장 770km나 이어진 초대형 트레일이다. 동해를 오롯이 품은 해파랑길은 부산-울산-경북-강원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1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거친다. 지역별로 10개 구간(부산, 울산, 경북, 포항, 영덕, 울진, 삼척-동해, 강원, 양양-속초, 고성), 모두 50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해파랑길은 걷기 여행 열풍을 몰고 온 제주올레나 지리산둘레길보다도 훨씬

방대하다. 해안을 따라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올레는 모두 26개 코스로 전체 422km 길이다. 3개 도(전남-전북·경남)와 5개 시·군(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하동·산청군, 전남 구례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둘레길은 20개 코스, 274km다. 해파랑길의 구간 평균 길이는 약 15km다. 가장 긴 구간은 경북 포항의 16코스(23.3km)이고, 최단 구간은 강원도 삼척의 30코스(7.2km)다. 해파랑길의 전체 난이도는 쉬운 편이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코스는 전체 50개 코스 중에서 6·20·28·29·36코스 등 5개 코스뿐이다. 난이도 '상'이라고 해도 산을 둘러 가는 수준이다.

해파랑길은 동해안의 명소 대부분을 들른다. 부산 광안리-해운대 해수욕장, 울산 간절곶,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 포항 호미곶, 강원도 강릉 경포대, 속초 아바이마을, 고성 화진포 등 동해안의 명소 대부분이 해파랑길로 이어진다. 아울러 부산 송정-일광 해변, 고성 백도해변, 태화강 심리대숲 등 이른바 '동해 명소'도 해파랑길은 찾아간다.

#### 걷기전 준비하는 해파랑길 여행가이드

**Guide 1 짐 꾸러기, 가법게 더 가볍게!**  
장거리 걷기에는 배낭 무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날 걸기를 계획할 경우, 두세 벌 정도의 여벌을 준비하고 지퍼식 차탄대, 모자, 송진기 등을 잊지 말고 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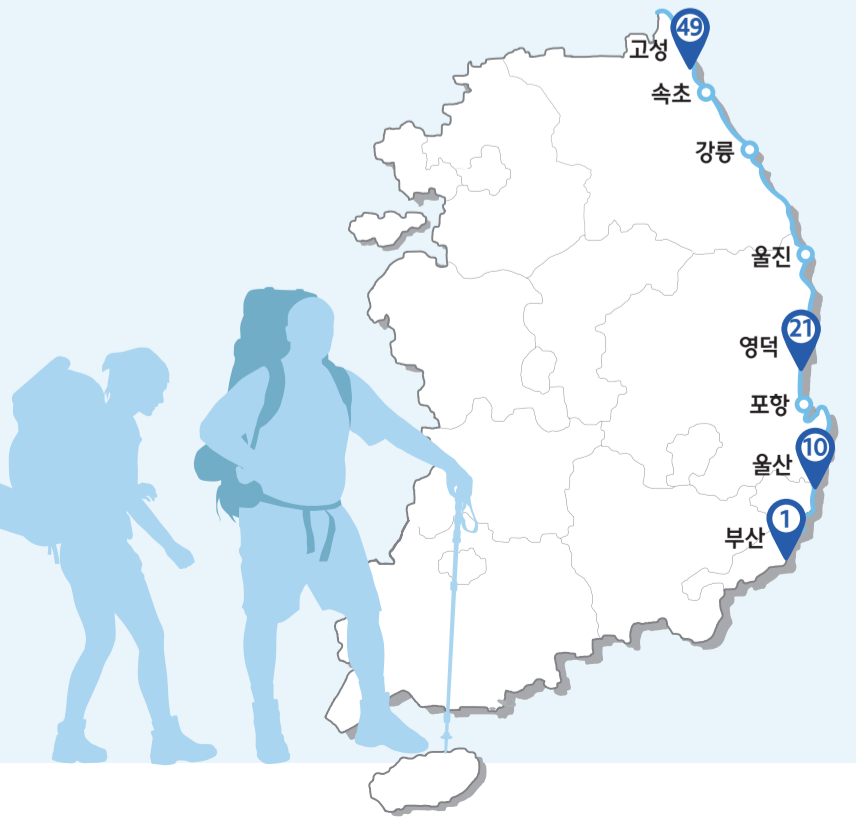
**Guide 2 주식은 곡물류, 간식은 단것으로!**  
걷기 여행 중에 주식은 지구력을 갖게 하는 탄수화물을 위주의 식단을 하고, 간식은 에너지로 곧바로 쓰일 수 있는 사탕, 초콜릿 같은 단당류가 적합하다.

**Guide 3 속박, 휴가 시즌은 비박도 각오야!**  
국립 휴양지인 동해안은 짐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다. 사전에 숙박을 예약하되, 예약이 어렵거나 현장에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관광지, 마을회관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자.

자료 제공=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  
(http://haepara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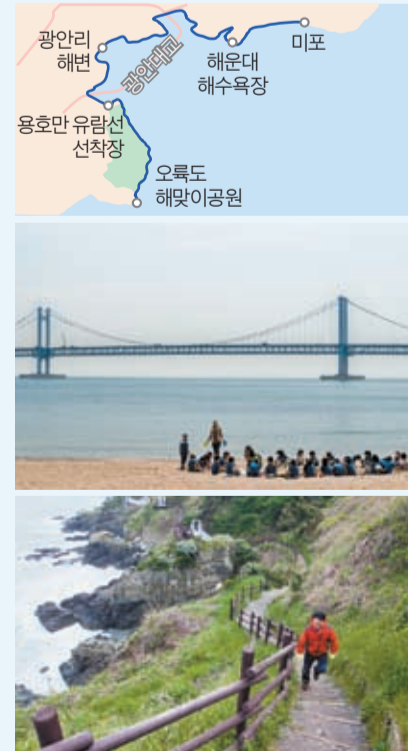
## 해파랑길 BEST 코스 4

### 동해안 절경을 오롯이 품다 스페인 산티아고길 저리 가라



#### 1코스 부산 해파랑길 들어리길

오륙도 해맞이공원-동생암-광안리해변-APEC하루스-미포  
●길이 17.7km ●소요시간 3시간 ●난이도 중



770km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1코스는 부산시 남구 오륙도 해맞이공원부터 해운대구 중동 미포까지 이어진다. 오륙도·이기대·광안리·해운대 등 부산의 해안 명소를 차례로 들른다. 시작점부터 탄성을 자아내는 비경이 펼쳐진다. 1코스 초반 이기대 해안산책로(5km)는 아찔한 해안절벽을 따라 나 있다. 이 길은 원래 군부대의 해안 순찰로였다. 1997년 이전까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다가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개방됐다. 그래서 아직도 해안산책로 곳곳에 철책이 남아 있다.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전경이 압권이다. 흥풍왕의 전경이 부럽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없었던 지역이어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봄이면 각시꽃-갯장대 등 야생화도 볼 수 있고, 해안산책로 안쪽의 숲은 돈나무·떡갈나무·동백나무가 우거져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광안리해변에는 카해식당 등 편의시설이 많아 쉬어가기에 좋다.

부산관광공사 관광사업팀 051-780-2133

#### 10코스 울산·경주 주상절리를 걷다

정자항-강동화암주상절리-관성해변-음천항-나이해변  
●길이 13.9km ●소요시간 4시간30분 ●난이도 중



10코스는 주상절리를 품은 길이다. 용암은 땅 위에서 굳을 때 수축현상이 발생한다. 이 수축현상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혹은 육각형 기둥을 주상절리라고 부른다. 화산섬 제주도나 주상절리로 유명하지만 동해안에도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울산 강동화암주상절리와 경주 양남주상절리다. 10코스 시작점인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에서 약 3km를 걸어가면 강동화암주상절리가 나온다. 제주도의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길게 뻗은 반면 강동화암주상절리는 수평으로 누운 모습이다. 강동화암주상절리가 있는 화암마을에서 4km를 더 나아가면 관성해변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경북 경주시다. 경주시 양남면 하서항에서 음천항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은 경주시가 조성한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겹친다. 이 구간은 일반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은 명소다. 약 2000년 전에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 바로 옆으로 데크로드가 깔려 있다.

울산시 관광진흥과 052-229-3872

#### 21코스 영덕 대게의 길

영덕 해맞이공원-오보해변-경정해변-축산항  
●길이 12.2km ●소요시간 4시간 ●난이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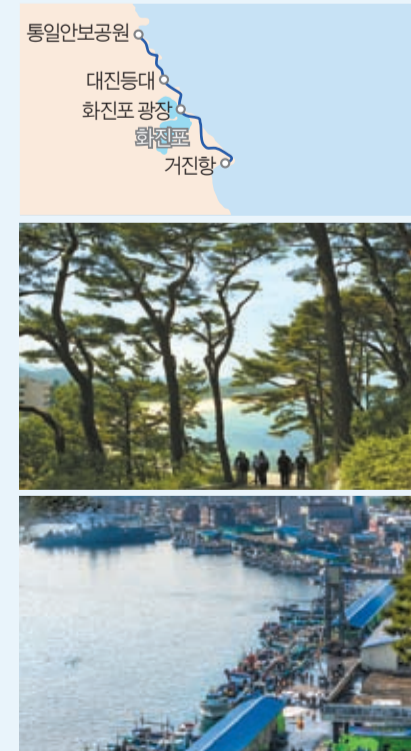


21코스는 경북 영덕군이 조성한 '블루로드 B코스'와 똑같다. 이 구간은 해파랑길로 지정되기 전부터 동해안을 대표하는 걷기여행길이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길이나 있어 풍경이 빼어나다. 21코스는 창포말등대에서 시작한다. 창포말등대는 영덕 특산물 대게처럼 생겼다. 거대한 집게발이 등대를 휘감아 집어삼킬 듯하다. 창포말등대 서 있는 영덕 해맞이공원에서 빠져나오면 대탄해변~오보해변 등 아담한 백사장들 차례로 지나 대게 원조 마을로 불리는 경정리에 닿는다. 태조 왕건이 영덕에서 대게를 먹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서 발견되면서 영덕은 경북 울진과 포항을 제치고 대게 원조 고장으로 인정받았다. 경정리 차유마을은 영덕의 대게 마을 중에서도 원조 마을로 꼽힌다. '대게'라는 명칭이 탄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차유마을의 어민이 게 다리가 대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대게'라 부른 것이 기원이라고.

영덕군 문화관광과 054-730-6396

#### 49코스 고성 통일전의 품을 담다

거진항-화진포의 성-공강산로-통일안보공원  
●길이 11.8km ●소요시간 5시간30분 ●난이도 중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시작한 49코스는 항구 뒤편의 야트막한 언덕으로 이어진다. 소나무가 그늘을 내어주는 평탄한 산책로를 따라 15분쯤 올라가면 언덕 정상에 도달한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극적이다. 미풍 없이 고요한 화진포 앞바다와 끊임없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언덕에서 내려와 화진포로 향하는 길에 길일성 별장이라고 불리는 '화진포의 성'이 있다. 1938년 지은 건물로 48년부터 2년 동안 김일성이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다. 지금은 역사-안보 전시관으로 바뀌어 한국전쟁과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김일성이 여섯 살 때 화진포의 성 계단에 앉아 찍은 사진도 걸려 있다. 화진포의 성에서는 옥상을 올라가 봐야 한다. 옥상에 설치한 망원경으로 보면 이 북 땅이 생생하다. 화진포를 빠져나온 길은 초도항-대진항 등 작은 포구를 지난 뒤 통일안보공원에서 끝난다. 49코스는 사실상 해파랑길 도보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다. 고성군 관광진흥과 033-680-3046

49코스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아래)에서 화진포(위)를 거쳐 통일안보공원까지 이어진다.





노순택, 붉은틀, I-12, 2005-2007, Archival pigment print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2016.5.4~7.24 | 02-3701-9500

1989년 이후 한국 현대 미술과 사진

##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지난 30년간 한국 현대미술 속 사진 매체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 중이다. 54명의 작가, 총 200여 점에 이르는 이번 전시는 서울관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의 사진전이다.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과 사진〉전은 당대 사진가들과 현대미술 작가들이 미술의 언어로서 사진 매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명한다. 전시는 크게 네가지 챕터로 구분된다.

### 챕터 1 실험의 시작 Experiment Starts

1부에서는 회화적 모노크롬(Pictorial monochrome·단색화)을 특징으로 하는 주명덕 '잃어버린 풍경', 배우 '소나무'와 '오름' 시리즈, 민병현 '별거 아닌 풍경' 등 사진의 소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을 보여준다. 메이킹 포토(Making Photography·연출사진)와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도 함께 소개된다.

### 챕터 2 개념적 미술과 개념사진 Conceptual Art

사진 매체에 대한 실험은 1980년대 개념미술 작가들의 작품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에 활동한 성완경, 김용의 같은 민중예술계 작가들은 풍자적인 포토 콜라주 작업을 주로 했다. 성능경은 사진 그 자체를 이용해 시대를 꼬집은 작가다. 전시 2부에서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사진과 다큐멘터리 작업이 소개된다. 성능경의 첫 사진 작업인 'S씨의 반평생'과 'S씨의 자손들-망친 사진이 더 아름답다'가 포함돼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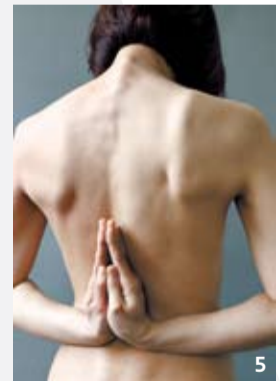
다. 개념미술 1세대라 불리는 이승택의 '지구 위의 드로잉' 작품이 대형 실사로 처음 공개됐다.

### 챕터 3 현대미술과 퍼포먼스 그리고 사진 Performance and Site Specificity in Contemporary Art

3부에서는 2000년 이후, 다양한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를 통해 국제미술의 흐름이 유입되고, 작품의 현장 제작과 설치라는 맥락이 중요해진 작품들을 선보인다. 정연두 '원더랜드' 시리즈, 최재은 'Nobody is there-Somebody is there', 조습 '네이션: 검은 밥' 등 비교적 최근작 위주로 전시돼 있다.

### 챕터 4 이미지 너머의 풍경: 상징, 반미학, 비평적 지평 Exterior & Interior Landscape

4부는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사진예술의 다양한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꾸며졌다. 강홍구 '생선이 있는 풍경' 시리즈, 정희승 '무제', 구성수 '한 알 고등학교' 시리즈 등 리얼리티에 근거한 이미지를 통해 이미지 너머의 풍경을 보여준다.



1 김인숙, Veneer-Desiree, 2014, C-Print, 디아섹 2 박불동, 코파카콜라, 1988, 포토 콜라주 3 최용빈, 바자 코리아 2016년 2월 4 김경수, 보그 코리아, 2007년 10월 5 정희승, 무제, 2014,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6 구본창, 태초에 10-1, 1995-1996, 인화지에 사진(흑백)

